

언론 사람

2018
vol.218

08

04

인터뷰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심옥주 소장

09

세상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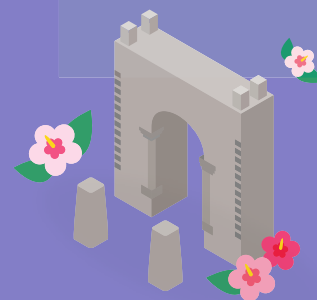
연필 한 자루와

아날로그의 힘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Close-Up



물구나무 소년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힌두 성지 리시케시(Rishikesh),
이곳은 명상과 요가의 성지로
일 년 내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리시케시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뜨거운 태양빛과 갠지스강의 영묘함은 소년의 겉옷뿐 아니라
마음마저 걷어낸 듯합니다.

물구나무선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년의 눈에는 힌두사원의 웅장함과 순례자들의 진지한 행렬,
하염없이 고행길을 걷는 사두(sadhu)와 갠지스 성수(聖水)에
몸을 담그는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 줄기 여름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 소년만큼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똑바로 보는 세상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겠지요.
거꾸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신기한지는 소년만이 압니다. 🌈

글 · 사진 |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장 ufo@donga.com



CONTENTS

2018 August
Vol.218



언론+



사람+

02 Close-Up
물구나무 소년

04 인터뷰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심옥주 소장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따뜻한 아이디어
새 모이를 주는 도마 &
침대가 되는 예배 의자

06 빅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워마드 낙태 사진 보도...
'사회악'은 누구?

07 언론법 이모저모
성체와 무함마드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드라마 속 형사 이야기

09 세상읽기
연필 한 자루와
아날로그의 힘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누구보다 제대로 잘 쉬고 싶은
'무민세대'

11 푸드텔링
여름의 술 '맥주'와
음식 짝짓기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8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적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조 있는 그들의 삶을 알리는 일, 나의 운명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활약한 많은 독립운동가들 속에서 유관순 열사를 제외하면 여성독립운동가의 이름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의 뒤편에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무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취재 | 홍보팀 최은진 차장 사진 | 홍보팀 이병연 에디터

Q |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는 '제대로'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았던 자료와 연구서를 가지고 2009년 3월 1일 부산에서 처음 간판을 걸었으니 내년이면 딱 10년이 되는군요.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금까지 여성독립운동가 299명이 독립유공자로 서원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로 터를 옮기고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Q | 최근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맡고 계신가요?

A |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68명의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민추진위원회'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독립운동가 학술부문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을 드리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상을 수상한 이후로 바쁘게 달리고 있는데요.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Q | 지금까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A |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남성 의병을 뒷바라지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의병으로 활동한 여성도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한 가족에서 남녀 할 것 없이 의병으로 활동하는 집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자금 명단을 작성할 때 여성의 이름은 거의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의병으로 활동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후 개화기를

지나며 여성운동가들에 대한 기록들도 생겨났지만, 학계의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왜 여성운동가를 연구하느냐는 시선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라도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Q |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신 여성독립운동가 중 여성 의병은 두 분입니다. 저는 그 두 분 중 한말 최초 여성 의병장이신 윤희순 열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윤희순 의병장은 시댁, 가족과 함께 강원도 춘천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셨고 중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학교를 만들어 독립운동 교육을 하신 교육자이기도 하죠. 독립운동의 시발점에 여성이 서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남발되는 연구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격'에 맞지 않지요. 자랑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격조 있게' 알리는 것이 저의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Q | 영화 <암살>뿐 아니라 최근 방영되고 있는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여성 의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투쟁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 의병 정신이 부각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은 의병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었거든요. 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 씨가 연기했던 역은 남자현 지사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영화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남자현 지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지요.

여성독립운동가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유관순 열사인데요.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신 김란사 여사도 여성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화학당 교사로 재직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제자를 가르치고, 평



- 2018.6~2020.6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추진위원회 위원
- 2018.5~현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민추진위원회 학술위원
- 2016.3. | 제15회 유관순상 수상
- 2011.9~2018.2 | 부산대학교 강의전담 조교수
- 2009.3.1~현 |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김란사 여사의 후손인 김용택 씨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택 씨는 여성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한 협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Q | 여성독립운동가 중, 남들과 다른 영역에서 활동했던 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 광복군 사료로 남아있는 여성독립운동가는 29명입니다. 총을 직접 든 여성독립운동가도 있지만, 다른 역할을 담당했던 분도 계신데요. 정보를 수집하고 광복군 관련 선전 활동을 했던 여성독립운동가들도 있었습니다. 방송사나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의 언론인과는 다르지만, 큰 줄기에서 그분들도 언론 활동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복군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Q | 현재 언론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A | 현재 언론이 다루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습은 너무 단편적입니다. 광복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만 보도되고, 보도되는 내용도 주로 그들의 삶이 그리 편치 않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가 만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오히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자신들의 행동에 더없이 당당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긍심 넘치는 모습보다는 정부의 지원 부족 등 단편적인 측면만 강조되다 보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자랑스럽고, 밝고, 당당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목소리를 장기적으로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뜻깊은 달입니다. 최근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유행하는 등 애국심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독립운동과 애국의 정신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A | 헬조선, 해화역 시위 등 현재 터져 나오는 문제들은 교육의 구멍이 낳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현실의 부당한 부분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왜?'라고 질문하며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위한 과도기인 것이죠. 애국심이 힘을 잃었다기보다, 모두에게 '사회적 과제'가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시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여성독립운동을 계승,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Q |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A | 최근 현충일 행사에서도 여성독립운동가가 언급되는 등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 국회에서 남북한 여성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인데요. 남북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도 해나가고 싶습니다. 북한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것이 일단 눈앞의 과제네요.

다만 일시적인 실적 위주로는 제대로 된 발굴이 어렵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와 그들 주변의 독립운동가들, 살던 지역에 대한 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성독립운동가의 궤적을 따라가며 '격조 있는' 그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발굴을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과제입니다.

Q | 마지막으로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독립기념관에서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데, 1년 12개월 중 여성독립운동가는 딱 1회만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답답해 12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담은 달력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여성독립운동 연구가 갈 길이 멀니다. 언론을 통해 여성독립운동이 많이 알려지고, 또 독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조마리아, 고수선, 유관순, 남자현, 정정화, 조화벽〉

위마드 낙태 사진 보도... '사회악'은 누구?

김양순 | KBS 디지털뉴스팀장



7월 13일 '위마드'라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중절된 태아 옆에 가위가 놓여 있는 끔찍한 사진이 올라왔다.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태아 사체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졌다. 어떻게? 언론의 입을 통해서. "논란"이나 사실일까?라는 "의심"은 한 줌도 없었다.

16일 한 언론은 <이번엔 태아에 가위질...천인공노할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모자이크한 태아 사체의 이미지를 넣은 기사를 출고했다. 기사만 보면 한국의 한 여성이 낙태를 하고 아이의 사체를 가위와 함께 잔인하게 찍어서 올린 엽기적인 행각 그 자체다. 사진이 진짜인지, 게시물에 대한 검증은 '1'도 없었다. 기사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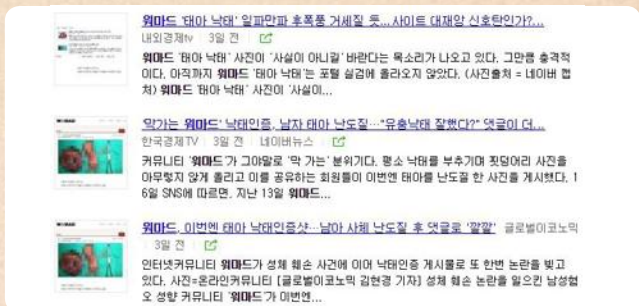
팩트체크 아닌 구글 검색만 했어도...인증샷 검증 가능

팩트체크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검증 도구를 사용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은—찾을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올라가면— 2012년 어느 해외 사이트에 최초로 게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원본(original)을 추적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real abortion'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위마드에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이미지, 유사한 사진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증샷이 아니고(어떻게 인증샷일 수가 있는가!) 퍼온 이미지라는 것이 간단히 입증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팩트체크 없이 "도 넘은 위마드"라며 낙태를 실제로 단정 짓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다음은 누구나 예상한 수순. #위마드와 #낙태 #인증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순간, 실검 장사가 시작됐다. 기사 내용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제목만 바꾸는, 이른바 어뷰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뒤늦게 퍼온 이미지라는 게 알려지자, 언론들은 재빠르게 기사를 삭제하고 수정했다. 그러나 수정된 기사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위마드 사태를 키운 장본인은 기성 언론 >>> 인터넷 언론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사로 등록된 언론사를 일간지+방송+통신사(60곳)와 인터넷 신문+스포츠+연예지(262곳)로 나눠봤다. 6월 20일부터 한 달간 '위마드'를 키워드로 한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언론보도 건수는 모두 1,900건. 기성 언론사와 인터넷 신문, 스포츠연예 매체 중 누가 더 위마드 기사를 많이 썼을까? 3초 드러난다. 3...2...1... 정답은, 기성 언론이다. 일간지와 방송, 통신사 60곳이 쓴 위마드 기사는 491건, 인터넷 신문과 스포츠연예 언론은 468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건수만 문제가 아니다.



<위마드 '낙태인증'에 대한 오보 기사들>

"난자당한 태아", "가위질", "난도질" 표현 난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선 정말 비참한 심정이다. 일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을 때도 비슷했다. 커뮤니티의 글들을 일일이 받아서 공적 매체들이 쓰는 행태가 단순히 이슈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 익명의 사용자들에게 더 자극적인 글을 쓰도록 부추긴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행했다. 지금은 그나마 있던 염치도 사라진 걸까. 그저 받아쓰기에 그치지 않고 말초적으로 흥분시키는 엽기적인 언어들이 난무한다.

오늘(7월 20일) 언론 보도들은 "일베가 된 위마드"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가 사회악인 현실에는 눈을 감고서.



성체와 무함마드

김주연 | 변호사

얼마 전 워마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가톨릭에서 예수의 몸이라 여기는 성체에 낙서를 하고 이를 불태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예배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다양한 죄목을 통한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케이스에 대하여 실정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배 행사를 방해한 일은 없었으므로 예배방해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하여, 이러한 죄가 성립하려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종교를 믿는 개개인, 또는 특징이 가능한 교인 집단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명예훼손(또는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종교가 국교이던 시절이었다면 법적 판단이 달랐을 듯싶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에서 타인의 종교는 존중의 대상일 수 있되, 명예훼손죄 등이 보호하는 법익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케이스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비슷한 예로, 2005년 덴마크 일간지에서 무함마드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한 만화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다. 이슬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교의 창시자를 테러리스트로 모욕한 것이었다. 짐작컨대 만화 장르가 가진 패러디성도 고려되었을 것이고, 이슬람교 자체는 명예훼손(또는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점도 물론 참작되었을 것이다. 덴마크 검찰은 신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타인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는 '혐오표현'이 주목받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¹⁾을 말한다. 만일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소개한 사건들을 다소 거칠게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가톨릭을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표현방식이 저급할지라도 혐오표현에는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워마드 게시글로 인해 한국의 가톨릭 교인들은 불쾌함을 느끼겠지만, 본인들의 지위가 위협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에 거주하는 소수의 이슬람 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테러와 연관 짓는 만화로 인해 더 심한 차별과 배척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놓이기 쉽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 캐나다, 브라질 등은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형사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처벌받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정하고 나면 오히려 가벌성의 범위 밖에 놓이게 된 혐오표현에 대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비도덕적이고 위험한 표현은 강제로 억누르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무섭고 엄정하게 비난받아야 비로소 근본적

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의 저자인 제러미 월드론은 불쾌한 표현은 감내해야 하지만 존엄성을 해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는 혐오표현이 만연하면 우리 사회의 공공선이 파괴된다고 보았는데, 공공선이란 "개인이나 각 집단 개별 구성원들은 적대, 폭력, 차별, 타인이 행하는 배제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 아래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마치 우리가 들마시는 공기의 깨끗함이나 샘물의 수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좋은 사회가 지속되도록 돕는 것"²⁾을 의미한다고 봤다.

시간을 거슬러 1732년 런던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즈번이라는 자가 단면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 내용은 유대인이 기독교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여인과 신생아를 불태워 죽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런던의 반유대적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유대인들은 도심 곳곳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법원은 어떤 유대인인지를 전혀 특정할 수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중국에는 공공질서 차원에서 사회의 근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치안문란죄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한다. 혐오표현이 가지는 해악성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남혐/여혐 이슈라든가, 동성애, 난민 문제 등에서 일반적이고 때로는 섬뜩한 혐오의 언어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피해자 특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개인의 도덕심과 양심에 맡겨두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즈음이다. 

1) 홍성수 (2018).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31면.

2) 제러미 월드론, 홍성수·이소영 역. (2017).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15면.

드라마 속 형사 이야기

유선주 | 칼럼니스트

출처: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얼마 전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탕수육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겠다'며 난동을 피운 이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뉴스였죠. 자신이 먹은 탕수육의 고기가 돼지고기가 아니고 닭고기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시비를 가릴 때조차 누구나 쉽게 입에 올릴 정도로 과학수사 기법이 널리 알려진 요즘인데요, 경찰조차 과학수사기관의 존재를 모르던 시절, 1988년의 과거로 가게 된 경찰이 있습니다.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는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태주(정경호)를 1988년으로 데리고 갑니다. 증거와 원칙을 신봉하는 2018년의 경찰 한태주는 자신이 눈을 뜬 이곳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어 혼란에 빠집니다. 적법한 절차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지지 않던 시절이라 무조건 발로 뛰는 1988년의 경찰들은 과학수사를 말하는 한태주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무슨 FBI냐?"라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논리적인 추론에는 "형사 콧물보" 같다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당시 인기를 끌던 외화 속 형사를 떠올린 거죠.

이렇게 수사 장르물의 캐릭터들이 이전 세대의 클래식, 혹은 마스터피스가 된 작품을 극중에서 언급하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취조하던 박두만(송강호)이 MBC <수사반장>

의 주제곡에 폭 빠져서 박자를 맞추며 짜장면을 먹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수사 장르물은 과거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서 향수와 낭만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속 멋진 형사들과 다른 자신들의 '현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1971년부터 방송된 MBC <수사반장>의 형사들이 양복과 넥타이에 트렌치코트를 입은 모습이었다면, 이를 경찰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박두만과 동료들은 운동화를 신고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OCN의 <터널>은 <라이프 온 마스>와 반대로 1986년의 형사 박광호(최진혁)가 의문의 터널을 통해 2017년의 경찰들과 조우합니다. 현대의 형사들은 가족점퍼에 운동화, 통이 넓은 바지를 입은 박광호의 옷차림을 보고 "수사 반장이냐"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사실 박광호의 차림새는 <살인의 추억> 형사들과 더 비슷하죠.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터널>은 첫 대면에서 파트너 형사를 범죄자로 오인해 수갑을 채우는 장면과 용의자가 실은 목격자였다는 트릭을 <살인의 추억>에서 빌려왔는데요. 박광호를 놀리는 위 장면은 <살인의 추억>과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힌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라이프 온 마스>에도 <수사반장>이 등장합니다. 앞서 <살인의 추억>에서는 텔레비전 수사극을 보는 동시대 진짜 형사들이라는 리얼리티를 위한 장치로 쓰였는데요. <라이프 온 마스>는

주인공 한태주가 머무는 세계가 진짜 1988년인지, 교통사고를 당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그의 무의식이 재구성한 정교한 가짜인지 혼란에 빠뜨리는 장치가 됩니다. 한태주가 보는 <수사반장>은 최불암이 돌연 말을 걸기도 하고, 브라운관 바깥으로 나와 구둣발로 한태주의 방을 걸어다니기도 하죠. 극 중 한태주가 입는 옷들도 코트나 넥타이를 갖춰 입은 1988년대 수사 드라마 속 형사의 스타일을 재연합니다. 그의 무의식이 만든 세계라면, 어린 시절 깊은 인상을 남긴 텔레비전 드라마 속 형사들의 모습이 재료가 되는 것도 자연스럽죠.

<라이프 온 마스>의 원작인 동명의 영국 드라마 역시, <스타스키 앤 허치>나 <더 스위니> 등 1970년대에 큰 인기를 끌던 경찰 드라마를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성격이나 수사방식이 다른 두 수사관이 티격태격하다가 의기투합하는 식의 전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공식이죠. 이런 공식들을 따르고, 또 변주해 온 흐름을 살펴보면 시대마다 전형적인 수사관의 모습으로 굳어진 스타일이 있고, 또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만드는 캐릭터도 보입니다. 수사 장르물 속 형사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그들이 추적하는 대상의 옷차림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폭 내려쓰는 순간, 인파 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검은 군모'가 그렇죠. 범인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입니다. 

연필 한 자루와 아날로그의 힘

손관승 |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디지털 시대라지만 연필, 색연필, 만년필 그리고 중요 부분을 색칠하는 마커 같은 문구류는 늘 옆에 있어야 한다. 문구류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파버카스텔’(Faber-Castell)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필기구로 너무도 유명한, 1761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시작되어 257년이나 된 세계 최고의 문구류 회사다. 뉘른베르크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 뒤러의 고향이기도 하다.

시양 산업처럼 보이는 연필을 주축으로 한 파버카스텔은 오히려 더 번창하고 있다는 역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을까? 21세기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로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장인정신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것일까? 마침 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한국 회사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호기심에 그 사무실을 찾아갔다.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문구류를 찾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Creative하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마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온 것을 보니 손 선생님도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신 느낌입니다.”

천연 탄산이 섞인 독일의 미네랄워터를 권하며 그는 그렇게 첫마디를 던졌다. 그는 30년 동안 파버카스텔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회사는 용산의 허름한 건물 내에 있었지만, 사무실은 주변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사내 라운지는 스웨덴산 자작나무로 만든 탁자, 그리고 공간은 독일식 미니멀리즘의 극치여서 처음부터 내 시각을 확 사로잡았다. 특히 밀레 커피머신, 시원한 음료로 가득한 냉장고가 있는 라운지가 눈에 띄었다.

“직원들에게 음료 한잔이라도 제대로 대접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직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파버카스텔은 직원 복지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257년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지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필에서 시작한 파버카스텔은 세계 최초로 연필의 표준화를 이룬 기업이다. 볼펜, 지우개, 연필깎이, 마커, 만년필과 액세서리, 그리고 전

문가들이 애용하는 아트 앤 그래픽 제품에 이르기까지 문구류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제작사이다. 복도에는 노벨문학상 작가 귄터 그라스가 그린 그림이 걸려있다. 그는 소설가이지만 판화가이자 화가이기도 했다. 그곳에 비치된 자료를 보니 빈센트 반 고흐, 파울 클레, 오스카 코코슈카, 칼 라거펠트, 네오 라우흐 같은 위대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파버카스텔의 열렬한 고객이었다고 한다.

“이 연필들은 딱 알맞은 굵기에다 목공용 연필보다 훨씬 부드럽고 질이 좋아. 검은색이 특히 큰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좋더라고, 회색 종이 위에 재봉사를 그릴 때 써봤는데, 크레용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나더군요. 하나에 20센트야.”

1883년 반 고흐가 네덜란드 화가 안톤 반 라파르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파버카스텔은 독일이 자랑하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즉 강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 특별한 물건을 만든다는 DNA로 가득하였다. 그 같은 감성은 공학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싸다고 곧 귀한 가치를 지녔다는 뜻은 아니겠죠? 디지털 시대에 굳이 불편한 것을 선택한 이유는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편안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불편한 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좋은 디자인은 그 자체로 말이 필요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다. 전문가라면 그 품격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구를 쓸 줄도 알아야 한다. 만남을 끝내고 나오는데, 사무실 벽에 창립자 가문의 말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자!”

(Doing Ordinary Things Extraordinarily Well)

그렇다. 비결은 멀리 있지 않다. 자극히 평범한 데 있다. 🍷

2018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 누구보다 제대로 잘 쉬고 싶은 ‘무민세대’

박진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키워드는 2018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뜨거운 화두다. 더욱이 이번 7월부터 전격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추어 정부와 기업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온 근무 문화를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덕’과 ‘업’을 일치시키고, 자유분방한 여가문화를 즐기며 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더욱 친숙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지난 2017년 진행한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직업 선택 기준 1위로 ‘워라벨’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제대로, 완벽하게 잘 쉬는 것을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무민세대’(無(없다)+mean(의미)+세대)라는 키워드로 소개한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에서 그들만의 의미를 찾고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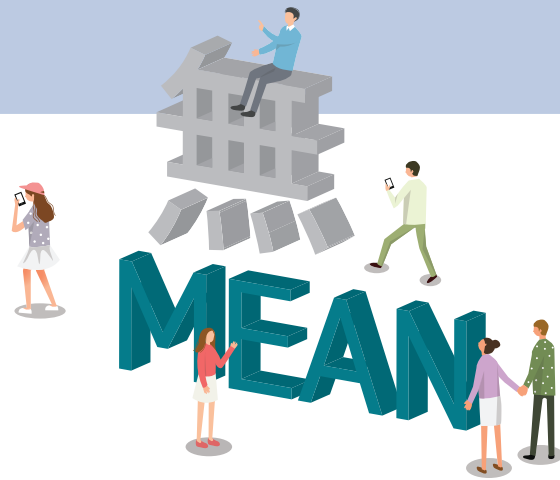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의 소통에 없어서는 안 될 ‘이모티콘.’ 그중에서도 10~20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이모티콘은 더욱 간결한 선과 단순한 색감으로 무장하고 있다. 내 의사와 감정을 복잡하지 않게 부담 없이 표현하고픈 무민세대의 니즈를 잘 나타내는 사례이다.



〈10~20대 카카오톡 이모티콘 인기순위 리스트〉

또한, 이미 10대 사용자층에서는 네이버 검색량을 넘어섰다고 하는 유튜브에서는 곳곳에 쓰이는 플라스틱 플로랄 폼에 물을 묻히거나 색을 입히며 노는 동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별생각 없이 손끝의 감각을 통해 전해지는 원초적인 자극과 소리에 편하게 집중하며 휴식하는 것이 20대에게는 만족스러운 쉼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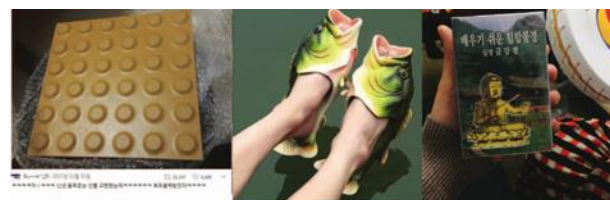
맛집을 탐방할 때에도 화려한 변화보다는 소박하고 편안한 골목길 상권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41.5%를 차지하며, 핫플레이스보다 편안한 공감 감성의 동네 맛집이나 카페가 더 트렌디하다고 답한 비율도 62.5%에 이를 만큼(2017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대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키워드” 조사 결과), 2018년의 밀레니얼 세대를 관통하는 코드는 바로 ‘일상적



소소함’이다. 특별히 바빠야 하거나 어렵지 않은 쉼, 화려한 자극이 없는 휴식 자체가 공들여 성취하고자 하는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취업도 준비해야 하고, 학교 밖 인생 경험이나 문화생활, 진로와 관계에 있어 고민거리 등등 챙겨야 할 삶의 요소가 참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휴식은 더 이상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의 개념이 아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인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몰입하기보다 현재의 일상과 여유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이 43.3%를 차지했으며, 온전한 휴식만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책정한다는 응답 비율도 56.4%에 이르기도 했다. (2018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 세대 행복의 조건 조사 결과)

이렇게 자극과 화려함을 줄이려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오히려 자극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다. 페이스북 〈무자극 콘텐츠 연구소〉라는 페이지에서는 집에 들어와 마시는 물 한잔이나 화장실 수건걸이, 식당에서 흔히 보는 앞접시와 같은 일상 속 의미 없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미디어와 기업들의 콘텐츠 전쟁터에서 지쳐가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꽤 괜찮은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예상 가능했던 선물의 의미와 맥락을 끊어주는 쓸모없는 선물 교환이 밀레니얼 세대에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각종 SNS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점자 보도블록이나 힙합 불경, 김정은 초상화, 봉어 슬라이퍼 등 유쾌하면서도 다소 허탈한 웃음 한 모금을 자아내는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일상 속 쉼 한 토막을 만들어 낸다.



대단한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며 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던 잘 쉬는 법에 대해 열심히 연구 중인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워라벨’은 지극히 당연한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본격 워라벨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일상 속 작은 휴식에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의식주 등 소비와 문화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

여름의 술 '맥주'와 음식 짝짓기

이용재 | 음식평론가/번역가

올해도 어김없이 엄청난 무더위가 찾아왔다.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맥주가 있어 다행이다. 낮은 도수와 탄산의 청량감 덕분에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는 신맛과 입맛을 돋워주는 씹쓸함까지 갖춰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의 궁합이 단순한 음식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로 발달한 이유도 치킨의 바삭함과 짭짤함, 그리고 기름기를 맥주만큼 효과적으로 씻어 주는 술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일반 국산 맥주는 아직도 조금 더 분발해야만 하는 처지이지만 소규모 양조장의 소위 '크래프트' 맥주의 등장으로 저변이 넓어진 것만은 확실하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입이 당분간은 요원해 보이지만 그래도 상황은 좋다. '4켄 만원'의 편의점 수입 맥주가 골목마다 갈증 해소의 5분 대기조로 맹활약 중이고, 맹렬했던 다양성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어쩌면 맥주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대표적인 맥주 두 종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의 짝짓기에 대해 살펴보자.

[라거]

가장 일반적인 한국의 대량 생산 맥주는 라거(lager)이다.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라거 가운데서도 색이 옅은 '페일 라거(pale lager)'로,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 보아도 가장 대중적인 형식의 맥주이다. 김치를 포함해 세계의 맛있는 음식이 그렇듯 맥주도 발효를 거친다. 효모가 맥아, 즉 싹을 틔운 보리의 당분을 섭취해 대사하면서 맛을 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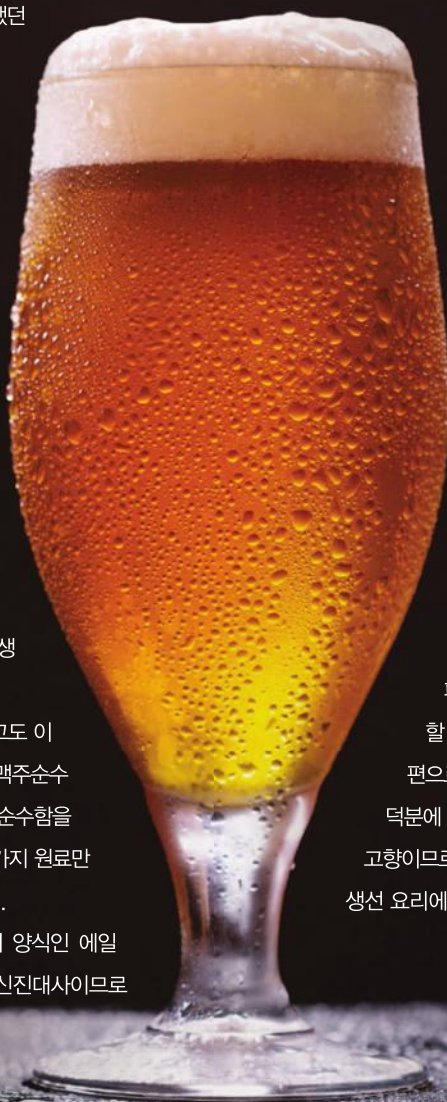
라거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이르고도 이른 1516년, 남부 바이에른 공국의 발헬름 4세가 '맥주순수령(Reinheitsgebot)'을 반포해 명칭처럼 맥주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시도했다. 보리, 홉, 물과 효모의 단 네 가지 원료만으로도 맛있는 맥주를 빚을 수 있는 특성 덕분이다.

바로 이 발효의 차이가 라거와 또 다른 맥주의 양식인 에일(ale)의 개성을 구분짓는다. 발효는 미생물의 신진대사이므로

온도가 결과물을 좌우한다. 라거는 '라거링'이라는, 동굴 등의 서늘한 환경 속에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양조법에서 명칭을 따왔듯 낮은 온도(5~12℃)에서 발효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완만한 발효가 일어나므로 도수도 높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도 적다. 덕분에 효모가 맥주의 바닥에 깔린 채로 발효가 이루어지므로 흔히 '하면 발효 맥주'라고 일컫고 비교적 맑고 청량하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필스너 우르켈' 같은 필스너(pilsner), 북(bock) 등이 페일 라거로 분류되는데, 치킨은 물론 치즈 샌드위치, 초밥, 심지어는 애플파이 같은 디저트와도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 한편 둔켈(dunkel) 등 색이 진한 '다크 라거'도 있는데 중국 음식이나 바비큐 등과 잘 어울린다.

[에일]

라거가 '하면 발효' 맥주라면 에일은 '상면 발효 맥주'이다. 비교적 높은 온도(15~24℃)에서 발효가 이루어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고, 덕분에 효모가 떠올라 붉은 명칭이다. 활발한 발효 덕분에 도수도 라거보다 높은 편이며 색과 맛, 향도 한층 더 진하다. 홉은 물론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에스테르의 과일향 등을 좀 더 잘 즐기 위해 음용 온도 또한 라거보다 조금 높다(라거 6~9℃, 에일 7~11℃). 그래서 처음에는 에일이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이들을 위해 라거와 마찬가지로 '페일 에일(pale ale)'이 있다. 양조 과정에서 싹을 틔운 보리, 즉 맥아를 굽는 불을 일정하게 유지한 덕분에 색과 맛이 기존의 에일보다 열어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는 물론 요즘 저변이 넓어진 타코를 비롯한 멕시코 음식 등과 잘 어울린다. 페일 에일 가운데 특히 IPA(India Pale Ale)에 주목할 만하다. 이름이 말해주듯 인도 강점 당시 영국에서 선편으로 수송하기 위해 방부제의 개념으로 홉을 많이 첨가한 덕분에 특유의 꽃이나 과일향이 한층 더 두드러진다. 영국이 고향이므로 피시 앤 칩스, 또는 한치 튀김처럼 기름을 많이 쓴 생선 요리에 잘 어울린다. 





예술섬 제주에 신전(神殿)처럼 들어선 물방울 화가의 영롱한 미술관

이영란 | 미술 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1 물방울 화가 김창열미술관 전경. 제주 상징인 현무암을 따라 검은 외관을 차용했다.

돌과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제주는 예부터 '삼다도(三多島)'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 무색해졌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재 제주도 총인구는 66만 3526명(외국인 2만3000명 별도)입니다. 그 중 남성인구는 전체의 50.34%인 33만4007

명으로, 여성(49.66%, 32만9519명)보다 많습니다.

제주에 근래 들어 급증한 것은 뮤지엄입니다. 등록된 박물관이 62개, 미술관이 19개나 됩니다. 인구대비 전국최고수준이지요. 그러니 이제 제주도를 '사다도'(四多島)라 불러야 되겠네요.

무미건조한 일상에 지쳐 '신선한 자극'이 필요

하다면 제주의 서쪽 한경면을 추천합니다. 제주에서도 가장 개발이 늦어 곳자왈(덤불) 등이 남아있는 한경면 저지리 32만㎡ 부지에는 예술인 마을, 창작스튜디오가 들어섰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갤러리와 한옥, 조각공원이 자리 잡아 트래킹 코스로 제격입니다. 이곳에 지난 2016년 '물방울 화가' 김창열(89)의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롱한 물방울 그림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김창열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미술관이지요.

평남 맹산 태생의 김창열 화백은 6.25 때 1년 6개월간 제주에 머물렀습니다. 화가 이중섭과 교류하며 그림을 그렸답니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에 45년간 체류했지만 그는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꼽습니다. 그 인연으로 제주에 '물방울의 집'을 짓길 소망했고,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220여 점의 그림을 도에 기증했습니다.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는군요. 김 화백의 작품을 소장 중인 프랑스 퐁피두미술관 등 여러 미술



2 그림 속 물방울을 입체로 만든 조각.

관이 이 그림을 매입하길 원했지만 작가는 제주도에도 모두 내놓았습니다. 물방울 그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작품이 흩어져선 안된다고 판단한 거죠.

이에 제주도는 저지예술인마을에 92억 원을 들여 미술관을 건립했습니다. 현무암 빛깔의 검은 큐브(입방체) 8동이 목직하게 이어진 미술관은 검은 신전 느낌입니다. 미술관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물방울 회화의 탄생과 변모를 보여주는 전시실들을 차례로 둘러보고, 중정의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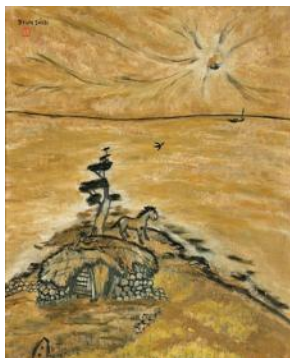
로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지요. 중정에는 '삼신(三神)'이란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물방울 형상의 유리조각 위로, 분수의 진짜 물방울이 맏힙니다. 현실과 가상, 물질과 비물질이 아름답게 조우하는 셈이지요. 옥상에서는 오름과 예술마을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미술관에는 프랑스, 대만, 홍콩에서도 화가의 팬들이 물려들고 있습니다. 흰 수염을 도인처럼 기른 김 화백은 "달마대사는 면벽(面壁)해서 9년 만에 도(道)가 통했다는데 못한

나는 물방울을 반세기나 그렸는데도 득도는커녕 속물로 살았다. 그래도 이런 미술관을 받았으니 큰 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김창열의 물방울 그림은 프랑스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을 거쳐 1969년 파리에 정착한 김 화백은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해 파리 남쪽의 마구간에서 먹고 자며 그림을 그렸더랬죠. 새 캔버스를 살 돈조차 없어 캔버스를 재활용하며 작업하던 어느 날, 물감이 쉽게 떨어지도록 화폭에 뿌려놓았던 물이, 아침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던 거죠. 신들린 듯 그 물방울을 그렸고, 이후 아름다운 물방울 회화들이 연달아 탄생했습니다. 곧 흘러내릴 듯한 물방울들이 찬란히 빛나는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것을 공(空)의 세계로 압축하며 존재의 근원에 닿고자 하는 작가의 소망이 읽혀집니다. 건축가 홍재승 씨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물방울 작품처럼 빛의 중정과 전시실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제주를 그린 '폭풍의 화가' 변시지



〈소년과 말, 캔버스에 유채〉

제주에는 많은 예술가를 배출했습니다. 그 중 변시지 화백(1926~2013)은 제주를 논할 때 늘 첫번째로 꼽히는 작가입니다. 서귀포에서 태어나 여섯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한쪽 다리를 다친 그는 불굴의 투혼으로 20대에 일본서 각종 기록을 수집하며 주목받는 화가가 됩니다. 해방 후 서울대 미대 교수로 초빙돼 후학을 지도하던 그는 신의 나이에 고향 서귀포로 돌아와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했습니다. 제주의 거친 바람과 새, 말을 형상화하는데 평생을 바쳤지요. 황토빛 화폭에 높은 파도가 넘실대고, 까마귀가 나는 그림은 그를 '폭풍의 화가'로 부르게 합니다.

변시지의 예술성은 1990년대 당시 세계 최대의 포털이었던 야후(Yahoo)가 먼저 알아봤고, '야후 선정 세계 100대 예술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 한국 현대미술을 널리 알린 첫 사례지요.

변시지 작품은 2006년 워싱턴 스미소니언뮤지엄에 '난무'등 2점이 상설전시돼 미국 등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과 10년간 만나기도 했습니다.

변시지 화백의 예술세계는 서귀포시의 기당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일교포 사업가였던 기당 강구범 선생이 건립한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은 '제주를 그린 화가' 변시지의 대표작들로 상설전시실을 꾸몄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에는 '변시지 그림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해변가 바위에 걸터앉아 제주 풍경을 그리는 화가의 조각상은 격변의 시대를 통과하며 '외줄 실존의 길'을 끈질기게 형상화한 작가의 여정을 차분히 유추해보게 합니다.



〈변시지 화백의 작품으로 상설전시실을 조성한 서귀포 기당미술관〉

위원동정

◆ 이재진 위원, <방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이재진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 일고찰>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을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적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

◆ 주정민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7월 9일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이승선 위원, 방통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이승선 중재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7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제7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최영재 위원, '춘천시 문화도시추진단' 집행위원장 위촉

최영재 중재위원(강원중재부,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7월 9일 이재수 춘천시장이 구성한 '춘천시 문화도시추진단' 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춘천시 문화도시추진단'은 9일 공식 출범하였고, 포럼을 가지며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 뉴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7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2월 12일부터 5개월간 운영되었으며, 447개 매체를 대상으로 자체심의 안건 104건, 시정요구심의 안건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체심의 결과,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8건, 제재조치별로는 주의조치가 39건, 경고 조치가 38건이었으며,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심각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문 게재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후보자가 시정을 요구한 12건의 시정요구안건을 심의해 이 중 6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 제3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수료식

7월 24일 제3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이 수료식을 개최하고 상반기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수료식은 지난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며 수료증 수여, 우수기사 및 우수팀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상반기 활동성적을 바탕으로 제4기 기자단을 구성, 8월부터 3개월간 기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8월 1일자 인사

교육본부 홍보팀 3급 차장 최은진 → 조정보부 조사1팀 근무를 명함
조정보부 조사1팀 3급 차장 박은영 → 운영본부 예산회계팀 근무를 명함
조정보부 조사1팀 4급 권영민 → 교육본부 홍보팀 근무를 명함
운영본부 예산회계팀 4급 이소영 → 조정보부 조사1팀 근무를 명함

◆ 언론중재위원회 캐릭터 공모전 개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형 홍보콘텐츠 개발을 위해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이나 팀으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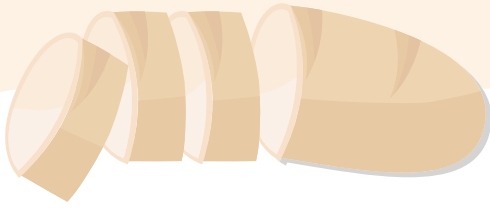
접수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상세한 공모주제와 형식, 제출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contest.p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제1호 발간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제1호가 8월 1일 온라인으로 발간되었다.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내용 분석, 언론분쟁 관련 판결례 수집 및 분석, 각국의 언론분쟁 및 피해구제제도 개관, 최신 미디어 동향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점검하여 분석하는 보고서이다.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제도와 동향을 다루고 있는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는 전자책(E-BOOK) 및 PDF 형태로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2월에 2호와 함께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따뜻한 아이디어



Bird crumbs & Church Chair

새 모이를 주는 도마 & 침대가 되는 예배 의자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디자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닌 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디자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이타적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할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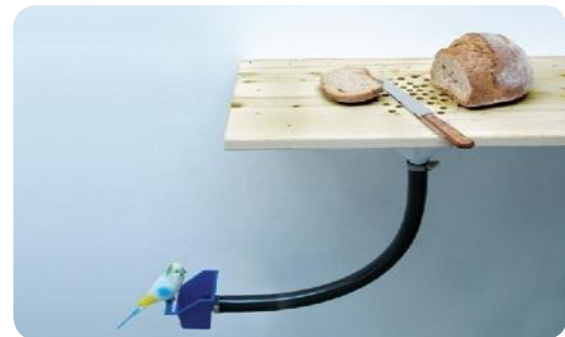
침대로도 활용되는 교회 예배 의자



따뜻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스페인 출신의 에코 디자이너인 쿠로 클라렛(Curro Claret)의 작품인데요.

이는 노숙자를 배려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것으로, 바르셀로나의 한 성당을 찾은 노숙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배용 의자로, 그리고 밤에는 노숙자들에게 잠자리로 활용되는 이 디자인은 사회 취약층에게 따뜻한 배려를 담은 디자인으로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에게 빵부스러기를 주는 도마



쿠로 클라렛의 따뜻한 디자인은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인데요. 새들의 천국인 유럽에는 각종 철새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새들이 반길만한 도구입니다. 도마에서 빵을 자르다가 떨어지는 빵가루가 도마의 아랫부분으로 떨어지면 새가 먹을 수 있게끔 디자인 돼 있습니다. 새들은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받을 수 있고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지요. 환경과 생명을 모두 배려한 디자인입니다.

우리는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따뜻함이 묻어나는 작은 아이디어가 늘어날수록, 삭막한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까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 개인 혹은 팀으로 응모가 가능하며, 1인/팀당 복수 응모 가능
(단, 수상은 1명/팀당 1작품으로 한정)

공모주제

"우리 결의 언론분쟁해결사,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친근하고 독창적인 캐릭터

공모형식

캐릭터 그래픽 이미지 4종(기본형 1종, 응용형 3종)

파일형식 jpeg 파일 (디자인툴 활용작 및 손그림 파일 스캔본 등)

작품규격 A4용지(210×297mm), 해상도 150dpi 이상

※ 수상작에 한해 추후 AI PSD 등 원본 파일 또는 원본 그림 제출

접수

7월 23일 ~ 8월 26일

- 1단계** 1단계 본인 블로그 업로드
- 2단계** 공모전 페이지 URL 접수

심사

9월 첫째주(예정)

- 1차** 자체심사 TOP 6 선발
- 2차** 네티즌 심사 페이스북 페이지

※ 1차심사(70%) 및 2차 심사(30%)를 종합하여 순위 선정

시상식

9월 둘째주(예정)

당선작 발표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지

시상내역

- 대상** 200만원 1(명/팀)
- 금상** 100만원 1(명/팀)
- 은상** 각 70만원 2(명/팀)
- 동상** 각 30만원 2(명/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해 주십시오.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 공모전 담당자 02-397-3082, pac3083@pac.or.kr

※ 본 포스터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